난관을 뚫고 철강재생산에 박차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과업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분발해나섰다.

전후복구건설시기 폐허속에서 짧은 기간에 선재압연기, 박판압연기를 복구하고 맨주먹으로 평로를 살려낸 그 정신, 산소열법용광로를 꼭 성공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기어이 주체철을 뽑아낸 그 본때로 이곳 련합기업소의 용광로직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강행돌파하면서 철강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용광로직장의 생산자들은 철강재생산의 앞공정인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잘하여 잘 익은 쇠물을 끓여내여 장쾌한 출선모습을 펼쳐놓고있다.

주체철생산계통의 심장부를 지켜선 조절공들과 용해공들은 산소보장단위와의 긴밀한 협동밀에 로운영을 잘해나가고있다.

보장단위에서도 용광로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앞세워 보장하고있다.

특히 산소분리기 2직장에서는 공기압축, 랭각, 정류, 분리, 산소압축 등 산소생산공정들의 조종과 조작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기대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제강부문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강철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강철직장 원료작업반에서는 강철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전기로에 필요한 주원료와 부원료들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대형초고전력전기로를 지켜선 전기로의 용해공들은 전기로의 운영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는데 모를 박고 장입물의 정확한 평량과 전극소비량 등 로조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이자 생산장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지난해 대보수기간 전기로의 동체계통에 대한 기술개조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기로에서의 열효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안들을 받아들이고있다.

련속조괴작업반, 유압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리면서 강철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청년선재직장에서는 교대별생산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고 련관공정들간의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여 가열, 압연, 전단설비들을 정상가동하도록 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가열작업반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가열로의 가스관, 공기관관리를 정상화하여 환강생산에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압연공들도 조연, 선재압연기의 조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능숙하게 해나가고있으며 전단작업반에서도 생산의 마지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압연강재생산공정의 선행부문인 롤가공직장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에 보내줄 궤도전차레루생산에 필요한 롤가공을 제기일에 보장하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다른 직장들에서도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건설공사를 비롯한 생산능력확장공사에 힘을 넣고있다.

이렇듯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겨진 철강재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중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일터에 넘치는 애국의 마음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크지 않은 공장이다. 하지만 오늘 이 공장은 여러가지 종류의 식료포장주머니, 각종 규격의 수지용기,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수지관 등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수지일용품생산기지, 보배공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자력갱생의 본보기단위로 앞장에서 내달리며 언제나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모습이 안겨왔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중나온 지배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공장의 외부가 공원처럼 아름답다는 우리에게 그는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꾸린것이라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환경을 번듯하게 일신시켜놓으니 힘은 들었어도 땀흘린 보람이 크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사람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쉬염쉬염 일해도 될 영예군인들이지만 너도나도 떨쳐나 단층건물에 뒤떨어진 설비 몇대가 전부이던 공장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시키기까지의 가지가지의 사연을 전해들으며 우리는 통합조종실에 들어섰다.

이곳에 들어서니 한쪽벽면을 채운 액정TV화면에 주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의 상태, 전력의 질과 소비상태, 기본공정정수들과 전반적인 생산실적이 수자와 도표형식으로 현시되고있었다.

공장에서는 공정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로 이루어진 통합조종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고 생산현장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있었다.

이어 생산현장에 들어서니 기대마다에서 천필처럼 흐르는 비닐필들과 문양곱고 다양한 형태의 식료품포장재들이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이곳에서 종업원들이 팽창압출기, 3면접합절단기, 색인쇄기, 합부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가며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현장에서 우리는 팽창압출기 권취부문의 속도조종장치를 개조하기 위한 프로그람을 자체로 개발한데 기초하여 원료절단기, 세척기, 탈수기, 건조기,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속도조절장치 등을 연구제작하고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도 만나보았다.

이밖에 수지판성형기, 수지고뿌성형기, 대형사출기, 자동중공성형기, 관성형기, 관접합기들에서 1회용수지밥곽과 고뿌, 운반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이 생산되여 나오는 모습도 볼만 하였다.

지배인은 파수지회수체계를 확립하여 수백t의 파수지를 재생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해결방도를 재자원화에서 찾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관성형기의 물자동조절변과 파쇄기, 전자조각기, 6kW능력의 태양빛전지판들을 새로 설치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하겠다고 말하였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수지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장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은 볼수록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국내외에서 명성떨치는 3관편성관현악단

얼마전 모란봉극장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조직 50돐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리였다.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대표적작품들인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매혹》, 관현악 《명곡묶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의 면모와 창조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교향악의 신비로운 음색과 장쾌한 선률, 심원한 정서적감화력으로 환희로운 음악의 세계를 펼치는 명곡들을 감상하면서 사람들은 깊은 감회속에 3관편성관현악단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더듬었다. 추억은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로 거슬러올랐다.

3관편성관현악단의 탄생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건반 및 지란악기들로 편성된 큰 규모의 기악연주형식인 관현악, 그 울림이 크고 폭넓은 음폭, 다양한 음색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감정정서로 그려내는 매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관현악은 음악예술발전의 정수를 이루고있다.

목관악기를 비롯한 악기들의 규모에 따라 1관편성 혹은 2관편성으로 불리우는 관현악에서 3관편성은 큰 규모라고 할수 있다.

1960년대말 3관편성관현악단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다. 재정문제, 악단의 력량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발목을 잡혀 웬간한 나라들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을 부러워하면서도 꾸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오래전부터 주체교향악건설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3관편성관현악단을 꾸릴 웅지를 품으시고 주체58(1969)년 12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3관편성을 110명으로 하고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120명정도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며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실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담한 구상이였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집단군이나 전략군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하는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향악단을 마련해주려는 은정어린 조치에 의해 전국각지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이 모여왔고 제일 좋은 악기들을 일식으로 받아안았다.

1970년 1월 26일, 드디여 공화국에서 대규모의 3관편성관현악단이 세상에 태여나는 력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게 되였다.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속에서도 새 조선의 교향악단을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밑에 각지에 흩어져있는 연주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주체35(1946)년 8월 국립교향악단의 전신인 중앙교향악단을 창립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선의 교향악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교향악으로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할 무렵 국내에서 교향악은 사대와 교조에 오염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극장무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형편에 놓여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 불이 켜지자 출연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연시작전에는 그래도 절반나마 차있던 객석이 공연이 끝나고보니 텅 비다싶이 했던것이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빈 객석에 대고 연주를 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연주가들은 가슴을 쳤다.

인민들이 듣고도 잘 알수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 유럽의 고전교향곡이나 그것을 본따서 만든 교향곡이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지 못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교향곡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것은 군중의 문화수준이 낮아 교향악을 리해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해설음악회》 같은것을 조직하거나 재담, 촌극을 펼쳐놓으면서까지 관객을 불러모았으나 이렇다할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음악을 즐기고 사랑해온 인민이라고, 문제는 어떤 교향악을 하는가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미학적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교향악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창작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럽곡이 아무리 명곡이라 하여도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쓸모도 없다고 하시면서 교향악을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민요와 인민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명곡을 편곡하는 원칙에서 발전시키며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고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직접 현지에 나가시여 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관현악 《내 고향의 정든 집》, 《그네뛰는 처녀》, 《아리랑》을 비롯하여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명작들이 련이어 태여나게 되였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도 그 나날에 태여난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농촌의 가을풍경을 한폭의 그림마냥 훌륭히 형상한 독특한 배합관현악의 울림, 어깨춤 들썩이는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결산분배장을 련상시키며 3관편성관현악소리를 뚫고나오는 민족적색갈이 탁 튀여나는 새납소리…

이렇게 창작된 교향악작품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어느해인가 국립교향악단의 지방공연때 한 녀성이 공연을 보고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무대에 뛰여올라왔다. 그리고는 《동무들! 감사합니다. 동무들의 연주를 커다란 흥분속에 들었습니다. 교향악이 이렇게 좋은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교향악이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냥 듣고싶습니다.》고 하면서 연주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한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져가던 교향악이 이렇듯 대중의 심금을 틀어잡고 인민들의 절찬을 받는 교향악으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던것이다.

서풍을 압도한 조선의 교향악

공화국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이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 지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적배합관현악의 황홀하면서도 독특한 울림앞에서 세상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교향악이라고 하면 자기들만의 독점물로 여기던 유럽의 음악전문가들은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고나서 《민족악기와 양악기의 배합에서 얻어지는 특색있는 소리는 유럽이 모방할수 없는 독특한 소리이다. 마치도 잘 정제된 향수에서 뿜어져나오는 그윽한 향기와 같았다.》, 《누구나 리해할 수 있는 인민적관현악의 참다운 표현이다. 조선예술의 극치를 보았다.》, 《유럽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훌륭한 예술이 동방에서 탄생하였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은 교향악분야에서 서풍을 압도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여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본 프랑스의 한 음악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악가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연주도 해보고 들어도 보았지만 이렇게 웅건장중하고 힘있는 대연주는 처음 들어본다. 내가 받은 감동과 흥분, 격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이 음악에 〈흰눈심포니〉라는 이름을 달고싶다.》

3관편성관현악단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연주기량에 있어서나 관록있는 세계적인 예술단체로서의 명성을 떨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어느 한 나라의 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 나섰을 때였다.

처음에 그의 태도는 매우 도고했다. 손색없이 꾸려진 모란봉극장과 120여명의 3관편성관현악단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하였지만 지휘를 앞둔 그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도고한 자세로 지휘탁에 오른 그는 연주가들의 안삼불수준을 타진해보기 위해 첫 곡으로 연주기교가 복잡하고 힘든 곡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주가들이 거침없이 그 곡을 연주하고 그가 지적한 다음 곡도 훌륭히 연주해내자 거만하던 그의 태도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였다.

협연이 끝나자 그는 대단히 훌륭하다,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조선의 교향악단과 안삼불을 해보았는데 세계적수준의 악단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약동하고있다.

그와 더불어 3관편성관현악단은 더욱 나래를 활짝 펴고 그 장엄한 울림을 끊없이 터치고있다.

주체교향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비약의 봉우리에로 떠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관현악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우리의 국기》와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줄기차게 나와 온 나라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3관편성관현악단은 명성높은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 시대의 진군가, 투쟁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주체교향악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